

광주공항 국제선 폐지 논란

건교부, 2008년 무안공항 개항 맞춰 기능 이전...市 강력반발

건설교통부가 오는 2008년 무안공항 개항에 맞춰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고 고시하자 광주시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28일 무안공항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폐지하고 무안공항을 국제공항화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이에 광주시는 생산도시화를 위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광주공항을 오히려 '개항공항'으로 승

격시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최근 항후 항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환경 분석 및 항공수요 전망, 공항개발계획 기본구상 등을 담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 종합계획은 ▲무안공항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등과 연계해 2007년 말까지 완공, 시운전 등을 거

쳐 2008년 개항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 개항시 국제선을 이전하며 ▲목포공항은 무안공항 개항시 폐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광주공항 국제선은 항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 방향을 결정키로 해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4년 4월 수립된 '무안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안공항 건설은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의 기능을 모두 무안공항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종합계획은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제외한 국제선 기능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교부는 무안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광주시와 광주 경제계는 공항의 기능이나 규모는 수용자와 항공사, 공항 운영자 등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광주공항은 8개 국내공항(국제공항 7개) 중 유일하게 독자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제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광주지역 경제구조가 소비형에서 산업형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국제회의도시 지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항후 수요를 감안해 '개항공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反FTA 시위 긴장 警, 불허...충돌 불가피

농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29일 광주 시내 일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경찰은 집회 대부분을 불허하고 사전보통화 계획이어서 또 다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8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운동본부' 5천여 명은 이날 정오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실질 협상·골육협상 한미 FTA 중단 2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500여 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농민구속구탄 한미 FTA 중단 시국대회 참가를 위한 사전모임'을 갖는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합원 2천여 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광주시 북구 임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총파업 승리 3차 결의대회'를 열고, 동구 호남동 광주지방노동청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행진을 마친 뒤 FTA 반대집회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임주희기자 jihim@



“닭 백숙, 안전해요”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닭고기 수요가 줄어들자,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양계협회 임직원 등 200여명은 28일 본부 구내식당에서 점심으로 닭고기와 계란을 먹으며 소비촉진운동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社 告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권위의 등용문이 되어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문화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단편소설·시·동화...12월15일 마감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06년 12월 15일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3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접수 시 연락처가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요.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은 부문별 상금의 반액입니다.
 - 당선작은 2007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임기 못마치는 첫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盧, 대통령직 포기 시사 파문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밝힌 후,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이날 당직 포기 가능성도 시사한 점과 관련, 당·청 관계 등 여러 내부의 분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계개편 논의가 이뤄

지지 않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배경을 설명하면서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던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2가지 뿐”이라고 전제한 뒤 “만일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4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전날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지자 여당 내부에서는 통합신당과 친노 그룹 사이에서 결별론이 확산되는 등 여러 내부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 집중하시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노 대통령이 또 다시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국민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노 대통령의 진의와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여러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주희기자 jihim@

익산 또 고병원성 AI

해당지역 학생 등교 금지

지난 19일 전북 익산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데 이어 부근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면서 전남지역 닭·오리농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농림부는 28일 “최초 고병원성 AI 발병 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곳의 종계(씨암탉) 농장에서 27일 오후 AI로 의심되는 폐사가 신고돼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병 농장은 최초 발병 농장에서 반경 3km, 즉 ‘위험지역’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 발생 농장 인근에 사는 초·중·고교 학생 50여명이 28일 등교 금지(임시휴업)나 귀가조치를 당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곁에 두면 든든합니다!

330년 북경동인당의 명품 **동인우황청심환-비**



- 중국을 대표하며 336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동인당의 제품입니다
- 정신안정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소환 금단(술/타입은 휴대와 복용이 간편합니다)
- 맛과 향이 우수하고 복용 후에도 입안이 깔끔합니다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효과를 인정합니다

이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 뇌졸중 • 고혈압 • 심계항진 • 정신불안
- 금-관 협정증 • 자음신경질증 • 당사불성

한편의 밀봉재약이 보증됩니다 제품 구입하실 때 제조된 북경동인당고분유황청심환 꼭 확인하십시오



동인우황청심환-비 굵은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문의: 080-022-1010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광교심약방: 895-0500